# 한·중·일 궁궐 건축의 이미지 특성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Image characteristics in Traditional Palaces of Korea, China and Japan

## 조은숙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석사

#### 박영순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교수

## Cho, Eun-Suk

Dept. of Human Environment & Design, Yonsei Univ.

#### Park, Young-Soon

Dept. of Human Environment & Design, Yonsei Univ.

• Key words: KOREA, CHINA, JAPAN, Image characteristic, Identical prototype

#### 1. 연구 배경 및 목적

산업사회의 물질 중심의 가치가 21세기에 들어서 정신 중심 의 가치로 이전하게 되면서, 새로운 세기는 문화의 시대로 규 정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 중국, 일본을 지칭한 동 아시아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데, 특히 중국과 일본사이에 위치한 한국의 문화는 어느 나라의 문화보다도 중간항 문화의 특성을 보이며, 동아시아 3국으로 대표되는 한.중.일 3국을 상 생의 문화로 이끌어 가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듯 국가 고유의 문화적, 사상적 특성이 중시되는 오늘날 과 같은 다국적 문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 는 '한국적인 것'에 대한 개념정립과 이를 통한 정체성 확립의 필요이다. 이러한 정체성 파악에 있어서 이미지는 개념, 사고, 의식과 더불어 자기 보존, 자아 본질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언어와 이미지의 관계와 언어와 사고의 관계는 동시 에 논의되어야 하며, 우리 문화의 전통에 대한 분석이나 개념 파악 역시 이러한 점에 바탕을 두고 연구되어져야 한다.1) 따 라서 본 연구는 한.중.일 삼국의 공통성과 차별성을 지닌 이 미지 특성 비교 연구를 통해 중국과 일본과는 다른 개념을 추 출하여 우리의 전통 조형물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 나름의 조 형 언어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기반 마련과 함께 한국 고유의 조형 이미지 특성 추출을 통한 한국 문화의 정체성 방향 제시 에 그 목적이 있다.

## 2. 연구방법 및 절차

연구방법으로는 조사도구의 선정과 이미지 표현 어휘 수집 및 추 출을 위한 문헌 조사방법, 자유 연상 측정법, 그리고 설문조사 방 법이 사용되었다. 조사도구로 사용된 한·중·일 궁궐 건축을 대표 하는 사진으로는 한국의 창덕궁, 중국의 자금성, 일본의 니조성의 외부 5점, 내부 2점씩의 칼라사진을 이용하였으며, 설문지는 47 개의 어휘를 선정하여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20대, 30대, 40대의 남·녀 대학생과 대학원생, 일반 직장인 들로 구성되었으며, 배포된 총 208부의 설문지 중 203부를 회수, SPSS를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 3. 연구 결과

**3-1. 한.중.일 궁궐 건축 이미지 표현어휘의 요인구조** [표3-1]에서 보듯이 한.중.일 궁궐 건축의 대표적인 이미지 표

1) 김영기(1991). 한국인의 조형 의식. 창지사. p. 128

현 어휘는 장식성, 안정감, 개방성, 선적특성, 비친근성, 여성 성 등 크게 6가지 요인구조로 나타났다.<sup>3</sup> 외부의 경우 화려함 과 단순성이 하나의 장식성의 요인구조로 파악된 반면, 내부 에서는 화려함과 단순성이 다른 구조로 파악되어 내부를 볼 때는 화려함과 단순함이 서로 반대된 개념이기보다 각기 다른 차원의 뉘앙스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요인의 구조는 외부와 내부 별로 요인이 나타난 순서에는 차이를 나 타내고 있어 외부와 내부 별로 사람들이 궁궐 건축의 이미지 특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3-1]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한.중.일 궁궐 건축의 이미지 요인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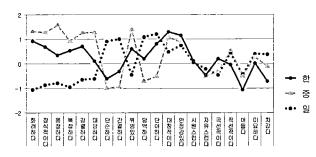
| 궁궐 외부의 요인 구조       |   |  |                | 궁궐 내부의 요인 구조       |                         |                      |       |
|--------------------|---|--|----------------|--------------------|-------------------------|----------------------|-------|
| 요인                 | 이미지   | 요인   | eigen<br>value | 요인                 | 이미지                     | 요인                   | eigen |
|                    | 표현어휘  | 부하치  |                |                    | 표현어휘                    | 부하치                  | value |
| 요인1<br>장식성         | 화려하다<br>장식적이다<br>웅장하다<br>복잡하다<br>강렬하다<br>대담하다<br>단순하다<br>간결하다<br>위엄있다<br>답백하다 | .839<br>.797<br>.792<br>.787<br>.766<br>.739<br>.735<br>.727<br>.720<br>.691 | 6.432          | 요인1<br>회려함         | 웅장하다<br>위엄있다<br>화려하다    | .889<br>.884<br>.568 | 2.464 |
| 요인 <b>2</b><br>안정감 | 단아하다<br>대칭적이다<br>안정감있다  | 651<br>.771<br>.766  | 2.008          | 요인 <b>2</b><br>단순성 | 단아하다<br>담백하다            | .893<br>.893         | 2.029 |
| 요인3<br>개방성         | 시원스럽다<br>자유스럽다  | .829<br>.824   | 1.681          | 요인 <b>3</b><br>안정감 | 대칭적이다<br>안정감있다<br>직선적이다 | .812<br>.694<br>.645 | 1.788 |
| 요인4<br>선적특성        | 곡선적이다<br>직선적이다  | .792<br>776  | 1.453          | 요인 <b>4</b><br>여성성 | 여성적이다<br>곡선적이다          | .855<br>.734         | 1.318 |
| 요인5<br>비친근성        | 어둡다<br>미묘하다<br>차갑다  | .669<br>.611<br>.581   | 1.237          | 요인5<br>개방성         | 자유스럽다<br>시원스럽다          | .833<br>.821         | 1.056 |

2) 외부와 내부의 요인분석 결과, 각 요인이 차지하는 분산의 비율을 살펴 보자면, 외부의 경우, 요인1은 32.158%, 요인2는 10.038%, 요인3은 8.404%, 요인4는 7.265%, 요인5는 6.185%로 총 누적 설명력은 64.052% 이며 내부의 경우, 요인1은 20.532%, 요인2는 16.910%, 요인3은 14.901%, 요인4는 10.984%, 요인5는 8.803%로 총 누적 설명력은 72.129%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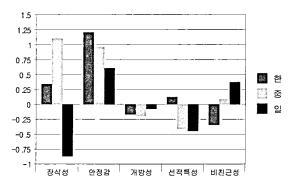
## **3-2.** 한.중.일 궁궐 건축의 이미지 특성 비교 (1) 외부

한.중.일 궁궐 건축의 이미지 어휘별 척도를 통해 각 나라별 로 점수의 차이를 비교하여 삼국의 이미지 특성을 알아본 결 과, 결과적으로 외부의 이미지 표현 어휘는 '시원스럽다'를 제 외한 전반적인 어휘에서 평균의 차이가 나타났다. "화려하다', '장식적이다', '웅장하다' 등의 장식성 차원의 어휘에서는 중 국>한국>일본의 순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단순하다', '간 결하다', '담백하다' 등의 장식성 차원의 어휘에서는 일본>한 국>중국의 순으로 차이를 나타내었다. '대칭적이다', '안정감있 다' 등의 안정감 차원의 어휘에서는 한국>중국>일본과 한국> 중국=일본의 순으로, 개방성 차원의 어휘인 '자유스럽다'는 일 본>한국=중국의 순으로, 선적 특성 차원의 어휘인 '곡선적이 다'는 한국>중국=일본의 순으로, '직선적이다'는 중국=일본>한 국의 순으로, 비친근성 차원의 어휘인 '어둡다', '미묘하다'는 일본=중국>한국의 순으로, '차갑다'는 일본>중국>한국의 순으 로 통계적 차이가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는 [그림 3-1],[그 림3-21와 같다.

[그림3-1] 한.중.일 궁궐 건축 <u>외부</u> 이미지 표현어휘 차이의 윤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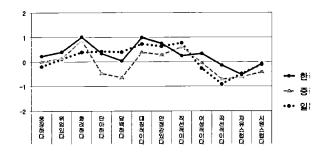
[그림3-2] 한 중 일 궁궐 건축의 외부 이미지 평가 차원의 평균 윤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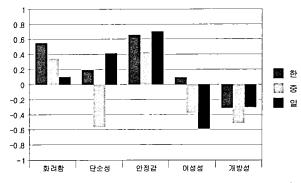
## (2) 내부

전체적으로 볼 때, 내부 이미지 표현 어휘는 '화려하다' '단아 하다', '담백하다'의 화려함과 단순성 차원의 어휘와 '대칭적이 다', '안정감있다'의 안정감 차원의 어휘, '여성적이다', '곡선적 이다'의 여성성 차원의 어휘들에서 대체적으로 큰 평균의 차 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외부에서 화려함과 단순성의 장식성 차원의 어휘들이 다른 어휘들에 비해 높게 평가되고 있는 점 에 비해, 내부에서는 장식성 차원의 어휘외에도 안정감과 여 성성 차원의 어휘들이 높게 평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화려 함에 있어서는 한국>중국>일본의 순으로 차이가 나타났으며, 단순성에 있어서는 일본>한국>중국의 순으로, 안정감에 있어 서는 한국=일본>중국의 순으로, 여성성에 있어서는 화려함과 마찬가지로 한국>중국>일본의 순으로, 개방성에 있어서도 안 정감과 마찬가지로 한국=일본>중국의 순으로 통계적 차이가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는 [그림 3-3], [그림3-4]와 같다.

[그림 3-3] 한.중.일 궁궐 건축 내부 이미지 표현어휘 차이의 윤곽



[그림3-4] 한.중.일 궁궐 건축의 <u>내부</u> 이미지 평가 차원의 평균 윤곽



## 4. 결 론

한.중.일 궁궐 건축을 나타내는 이미지 특성을 종합하여 공통 성과 차별성을 파악하였다. 우선 삼국의 공통적인 이미지 특 성은 선적 특성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한국은 직선보다는 곡 선적인 특성이 주요하게 나타났으며, 중국과 일본에서는 곡선 보다는 직선적인 특성이 주요한 선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 다. 이와 함께 한.중.일 궁궐 건축의 차별적인 이미지 특성을 살펴보자면, 한국의 이미지 특성으로는 안정감, 곡선적 특성, 여성성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이미지 특 성으로는 장식성, 직선적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의 이미지 특성으로는 단순성, 비친근성, 개방성의 특성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한.중.일 궁궐 건축의 외부와 내부 모습을 통해 삼 국의 주요 이미지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 해 인접한 문화권에 속하는 동아시아 삼국의 이미지 특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해 볼 수 있었으며, 오랜 시간동안 지 리적인 영향과 문화적인 면으로 인해 중국과 일본의 문화권에 서 중간적인 입장으로 평가되었던 한국의 이미지에 대한 고유 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